금주의 법구-〈대장엄론경〉
함부로 남을 모략하지 말며
남의 잘못을 전하지 말며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5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6월 15일) 2019년 7월 17일 수요일

자살예방 종책 조사로 불자 맞춤 솔루션 제시

[진단] 불교생명존중운동 활동 과제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정부와 불교계가 본격적인 자살예방 사업에 나선 가운데, 자살을 비롯한 생명존중, 인식에 대한 종책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선업)은 7월 25일 서울 조계사를 시작으로 9월 8일 서울 봉은사, 10월 13일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생명살림 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생명살림 법회는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적인 시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자살예방 활동의 본격 진행을 의미한다.

이번 3차례의 생명살림법회는 명상 수행과 접합해 일반 대중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비희사를 활용해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자비심 발현과 생명 고귀함을 찬탄하는 사무량심 명상법회와 자살 고위험군의 괴롭고 힘든 마음을 위로하는 기도염불법회, 천천히 걷기를 통해 자신의 마음상태를 알아차려 건강한 에너지를 불어넣는 걷기명상 법회 등으로 테마를 잡아 진행된다. 참여 예상인원은 약 2400여 명으로 법회 현장에서는 생명존중 리플릿 배부와 생명서약서 작성 등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캠페인도 함께 펼쳐진다.

국내 자살자 현황은 심각하다. 2017년 OECD자료를 보면 13년째 1위다. 2015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26.5명으로 OECD 평균의 2배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확산' 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했다.

불교계도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자살예방운동을 펼치고 있다. 2014년부터 불교상담개발원을 단일창구로 하여 보건복지부와 자살예방 세미나와 생명존중 법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자살유가족 템플스테이와 종교의식,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9월 10일에는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조계사 등 전국 20여 사찰에서 일제히 생명살림법회를 열었으며, 올해에는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주최 한강명상걷기대회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자살예방 활동에 나섰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은 2016년 불교파이널케어 프로젝트를 통해 동국대 생사문화산업연구소와 함께 웰다잉 문화 접근에 대한 기본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불자들이 어떻게 삶을 마무리하고, 또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자살충동 여부나 우울증 등 어떤 부분에서 정서적 불안을 느끼는 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진 바 없다.

선업 스님은 "시계열 분석의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데이터가 전국적으로 이뤄져 축적이 되어야 하기에 일선 기관에서 진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자살예방 활동에 나선 현장에서는 이러한 분석자료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인터넷 등을 통해 생명존중 사상, 경전 내용 등에 대한 접근이 쉬운 만큼 경전에 의거한 원론적인 접근보다 불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자살예방 전문가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상담개발원 생명살림법회 시작
조계 · 봉은 · 범어사 순회 봉행
자살예방센터 건립 등 추진도

정작 불자들 인식 조사 전무해
노령화 따른 면밀한 접근 절실

있는 이범수 동국대 불교대학원 주임교수는 "불자들의 경우 윤회 사상으로 죽음에 대해 비종교인과는 정서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고독사가 많은 상황에서 고령인 불자들이 황혼기에 무엇을 중요시하고, 어떻게 대비하고, 자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등 기초연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불교상담개발원장 선업 스님은 "정부의 예산 투입으로 자살자 수치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황혼자살, 고독사 부분은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 불교계도 불자 노령화 추세에 따라 이에 대한 면밀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향후 불교중앙자살예방센터 설치를 통해 불교계 기관과의 연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교상담개발원은 자살예방 사업 일환으로 명상을 활용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공모를 진행 중이다. 7월 29일 총 4개 프로그램이 선정되며 선정 프로그램은 운영비 지원 및 결과보고서 발간이 이뤄진다.



"지계의 삶 살겠습니다"

부산 불자 2000여 명이 모여 지계의 삶을 서원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원허)는 7월 6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 센터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은 "계를 만나는 것을 가장 보람되고 아름다운 일"이라며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려운데 부처님의 정법을 만났다"고 계를 수지한 공덕에 대해 설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회적 책무 어긴 MBC 왜곡보도"

조계종, 조계 · 봉은사 시설 MBC 의혹 제기에 반박

각 사찰 자부담 50~60% 넘고
용도 부합하게 사용하고 있어

MBC가 조계사 안심당과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에 대해 템플스테이 예산을 받아 짓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 중이라고 보도한 가운데, 조계종이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면서 MBC에 정정 · 사과보도를 요청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MBC뉴스데스크 보도와 관련해 "조계사 안심당 및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에 대한 보도는 다수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밝힌다"고 7월 11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먼저 시설건립 예산과 관련해 안심당과 전통문화체험관은 템플스테이 예산과 무관하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조계종은 "MBC는 조계사 안심당과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예산이 마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지원하는 템플스테이 예산인 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두 건물은 템플스테이 예산과 전혀 무관한 별도의 예산으로 지어졌다"고 밝혔다.

조계종에 따르면 조계사 안심당은 2008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 원과 조계사 자부담 40여억 원을 바탕으로 지어졌다.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은 2017년 문체부 관광기금 20억 원 및 지방비 등 43억 원과 봉은사 자부담 46억 7000만원 등이 투입됐다.

앞서 MBC는 안심당이 문체부 특별교부세 20억 원, 봉은사 건물이 문체부에서 43억 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조계종은 이어 두 건물이 체험목적이 아닌 사적 용도로 사용된다는 취지의 MBC보도에 "건립 당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여건의 변화로 일부 공간을 지도법사 수행처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안심당은 행자부 예산 신청 당시 1층은 스님들의 수행처소로, 지하층은 사회사업 사무실로 계획했다. 현재 지하층에는 '일자리 나눔센터'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학생들이 모여 만드는 '우리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공간을 제공하고 자퇴청소년을 보듬는 사업을 실시했다. 지상 3층 교육관 역시 간화선과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 현재도 해당 목적으로 사용 중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에 대해서는 건립계획 당시 체험관 1동은 관리 및 숙소동으로, 체험관 2동은 체험 중심으로 계획했다고 강조했다. 50%를 넘는 자부담을 고려해 봉은사 경내에서 가설건축물로 사용하던 시설을 체험관에 우선 배치하는 계획서도 제출했다.

조계종은 이뿐만 아니라 "MBC는 조계사와 봉은사가 각 건물 건립에 50~60%를 상회하는 자부담 예산을 투입한 사실을 밝히지 않아 국민들이 건립비용 전액를 국고보조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보도했다"며 "공영방송으로서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거스르는 잘못된 보도행위다. MBC의 진정어린 사과와 빠른 시일 내 정정 및 사과보도를 이행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포교대상 수상 범위 확대된다

포교원 입법개정 예고… 타종단 문호 개방

조계종 포교대상의 수상자 폭이 확대된다. 불법홍포에 나선 불자라면 누구라도 수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7월 4일 포교대상 운영에 관한 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포교대상 공적기간은 20년에서 10년으로 낮춰지며, 후보자격은 조계종 외 타종단 소속 불자까지 확대된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적극 장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대상 외 공로상 공적기간은 10년에서 5년, 원력상은 3년으로 단축됐다. 그동안 공로자에게 수여되는 취지에서 포교 활동에 나선 이들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상의 폭이 대폭 넓어진다. 다만 조계종 외 타종단 소속 불자의 경우 포교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추천과정 또한 변경된다. 기존의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조계종 소속 신도단체 및 포교단체 대표자 추천에서 일반추천으로 변경되며 추천분야도 계층, 직능, 문화체육 등으로 다양해진다.

포교원 측은 "그동안 포교현장에서 앞장서온 이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더욱 열심히 포교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한국인을 위한 2019년도
maumtour.com 웹사이트에서 상세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달라이라마 친견법회
11월 1일부터 출발, 법문일정 : 11월 4일-6일(3일간)
주 관 | 동국대학교 티벳대장경 역경원 주 최 | 여수석천사 진옥스님
▶ 법회 행사는 보시금 3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 11/1 출발 달라이라마 법문 8일 ------ 230만원
B 11/2 출발 법문 + 델리관광 8일 ------ 230만원
C 11/2 출발 법문과 남인도 순례 11일 280만원
D 10/31 출발 법문과 인도 성지 15일 ---- 310만원
E 11/2 출발 법문과 부탄 순례 11일 ---- 410만원

황금빛 불탑의 나라 특가
미얀마 성지순례 7일
9월 21일 출발 ~ 9월 27일 도착
178 만원
* 10명 이상 모집시 출발
*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구법의 길을 따라서
실크로드·돈황 10일
9월 20일 출발 / 10월 10일 출발 259 만원
*10명 이상 모집시 출발 *15명 이상 인솔자 동행